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aring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Internet Use

김현지*
전북과학대학 복지계열

Hyoun-Ji, Kim
Dept. of welfare, Jeonbuk Science College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aring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Internet use, and to utilize the results as the basic data to develop a program, in which parents learn how to educate their children for better use of the Internet.

The subjects were 713 children whose grade are in fourth through sixth in an elementary school. Data were obtained with questionnaires. The instruments employed were Children's Internet Use and Addiction, and maternal rearing behavior characteristics-Rational Guidance, Affection, Authoritarian Control, Overprotection, Achievement Encouragement, and Active Involvement-Scal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rogram. They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NOVA, Duncan's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30.2% of the subjects has used Internet for more than three years. 55.6% of the subjects spend less than an hour per day in using the Internet. The two major types of Internet use were playing games(49.9%) and sending e-mails(25.4%). The main reason for playing Internet games was escape from stress(34.7%). 34.5% of the subjects also said that their parents usually encourage them to use the Internet.

Second, maternal affection, authoritarian control, and active involvem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ypes of Internet use. Maternal authoritarian control and overprote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reasons of doing Internet game.

The rational guidance and active involvement of mothers were correlated negatively with children's Internet using time, but their authoritarian control and overprotection we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children's Internet using time. Maternal overprotection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parents' encouragement level in the Internet use.

Third, the rational guidance, affection, and active involvement of mothers were correlated negatively with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In the other hand, maternal authoritarian control and overprotection we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Lastly,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types of Internet use and the reasons for doing internet game. Children's Internet using time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Rational guidance, Affection, Authoritarian control, Overprotection, Achievement encouragement, Active involvement, Internet addi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김종원, 2002).

아동의 경우,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하여 아동은 자아를 탐색하고, 부모와 가족을 벗어나 다양한 국적, 성격, 취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

* Corresponding author: Hyoun-Ji, Kim
Tel: 063) 530-9110
E-mail: 2003child@hanmail.net

력을 기를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 이외에도 인터넷에 따른 문제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십대의 46.8%가 인터넷에 접속하면 접속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궁금증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터넷 중독증세를 보이며(김선우, 2002), 초·중·고교생의 19.1%가 인터넷 때문에 숙제나 학과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42.8%는 밤새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잔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연합뉴스, 2000. 10. 4). 이처럼 지나치게 인터넷에 몰입할 경우 자기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충동적으로 되거나 자신의 기본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비중독자에 비하여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도덕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윤영민, 2000).

인터넷 중독은 Goldberg가 1996년에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말로 처음 언급하였으며,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일종의 중독 장애로 진단될 만큼 아동의 학업적, 직업적, 그리고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다(Brenner, 1996).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들 수 있다. 이 게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학교까지 결석할 정도의 생활적응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마약 같은 약물에 빠져 환청, 우울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이병국, 1999). 또한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의식과 심지어 청소년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세용, 2000).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음란물의 노출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68.3%가 인터넷 사용과 음란정보를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초등학교 시기부터 바른 인터넷 사용교육이 요구된다.

아동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변인으로 가정환경의 변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어머니들의 직장 취업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접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들면 만큼 아동들은 대중매체(TV)에 노출되었는데 요즘은 아동이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인터넷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서로 바쁘게 살아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떤 고민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 관계는 더욱 더 깊어지게 된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질 때 자녀들은 부모 대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게 되고 인터넷 상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게 된다.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은 친구를 더욱더 쉽게 만들 수 있고, 채팅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또 몰입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안하게 되면 자신의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초조한 생각이 들어 더욱더 인터넷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김종원, 2002).

이렇듯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몰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서 초등학생 아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률이 1999년에 13.2%, 2000년에 51.8%, 그리고 2001년에는 88.4%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인터넷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박희진, 2003), 교육부에서는 2001년부터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학교재량시간에 가르치도록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초등학생에게서 인터넷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용에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

기존 연구로는 아동의 인터넷에 대한 과다 사용,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격성, 충동성, 대인관계 회피, 불안, 스트레스 등의 문제들이 소개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권정혜, 2000; 김효선, 2002; 맹미희, 2003; 윤재희, 1998)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격성, 충동성 등 인터넷 중독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아동의 인터넷 중독의 환경적 변인 중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 즉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두가지 측면에서 아동의 인터넷 사용 및 중독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초등학생 아동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중독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과 인터넷 중독은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의 인터넷 사용 및 중독

1) 인터넷 사용

최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또한 인터넷의 특징인 편리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활용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률이 1999년에 13.2%, 2000년에 51.8%, 그리고 2001년에는 88.4%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박희진, 2003).

한국전산원(2000)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의 주이용 목적은 자료나 정보검색이 58.2%로 가장 많았고, 오락·게임은 57.0%, 메일사용은 9.3%, 학습은 4.7%로 나타났다. 그러나 N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목적은 게임 80%, 채팅 70%, 과제 및 공부 55%, e-mail 41%, 음악 다운로드 40%순으로 나타났다(iweekly, 2000). 윤영민(2000)의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활동을 정보형, 오락형, 통신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1순위 활동을 기준으로 정보형은 17.5%, 오락형은 34.0%, 통신형은 49.4%로 나타났다.

통계청(2000)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의 컴퓨터 사용율은 오락과 게임이 81.5%(6-9세), 62.2%(10-14세), 35.8%(15-19세)로 연령과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소 1주일간 컴퓨터 평균사용시간은 4.5시간(6-9세), 5.4시간(10-14세), 5.9시간(15-19세)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일보의 2002년 2월 18일자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88.4%가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은 인터넷을 사용하며, 초등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게임(42.6%), 자료검색(22.8%), 메일사용(21.2%), 학습(4.3%)순으로 나타났다(박희진, 2003, 재인용). 권준모(1996)의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남학생의 약 80%가 전자게임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38.4%에 비해 두배이상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번이상

전자오락게임을 하는 아동이 58.9%에 이르고, 전자오락 게임의 일회사용시간은 44.2%가 1시간이상이었으며, 게임 장르별 선호도는 스포츠, 롤플레이(역할수행게임), 액션 격투, 어드벤처, 시뮬레이션순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박희진, 2003), 아동의 인터넷에 대한 과다사용과 지나친 몰입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이봉건, 1999).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는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일컫는 말로 Goldberg(199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인터넷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의존성, 웹에 매달려 컴퓨터를 끄고 빠져나오기 점점 힘들어지며 오래 있어도 작업효율은 떨어지는 내성현상, 그리고 인터넷을 떠나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인터넷상에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어떤 e-mail이 와 있을지 몹시 궁금해하는 금단증상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마약·약물복용, 본드 흡입 등과 같은 물질중독보다는 오히려 '행위중독증'적 측면에 가깝다(박희진, 2003).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리학적, 정신과적인 공식적 진단기준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며, DSM-IV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중독 현상이 다른 물질 중독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장애라는 병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병적 인터넷 사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 장애가 알코올 중독이나 충동적 도박과 같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며, 알코올 중독과 똑같은 유형의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통제 상실, 갈망과 내성증상, 결혼불화, 학업실패, 과도한 재정적 부채, 실직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김종원(2002)은 여러 연구들을 토대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흔히 호소되는 증세 및 증상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 박탈(5시간 이하로 잠을 잠)을 보인다(이는 접속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거나 사교활동, 직장 일이나 건강 유지를 위한 행동/운동 등 여타의 중요한 활동을 무시하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접

속하여 보낸다. 셋째,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 상관, 친한 친구, 또는 배우자가 접속 행동에 대하여 못 마땅해 한다. 넷째, 접속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시의 경험만 생각한다. 다섯째, 온라인 접속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며 굳게 다짐하기도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 잠깐 동안만 통신망에 접속하고 나온다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자주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중독되면 등교 거부나 결석이 잦아지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가정에서도 가족과의 대화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족 단위의 외식이나 여행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등 대인관계 기피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정혜, 2001). 또한 십대의 46.8%가 인터넷에 접속하면 접속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궁금증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터넷 중독증세를 보이며(김선우, 2002), 초·중·고 교생의 19.1%가 인터넷 때문에 숙제나 학과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42.8%는 밤새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연합뉴스, 2000. 10. 4). 이처럼 지나치게 인터넷에 몰입할 경우 자기조절능력이 약화되어 충동적으로 되거나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비중독자에 비하여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도덕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윤영민, 2000).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음란물의 노출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68.3%가 인터넷 사용과 음란정보를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여러 연구들이 인터넷의 오랜 시간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소개하였는데 다음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는 개인적 원인, 가정환경적 원인, 사회환경적 원인을 들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원인으로는 성격특성을 들 수 있다. 친구나 주위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평소에 남 앞에 서기를 수줍어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들의 개인적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정선태, 2001). 또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관계가 위축이 되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된다. 인터넷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그들은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된다(윤재희, 1998).

가정환경의 원인으로는 첫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서로 바쁘게 살아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어 서로의 고민을 알지 못하며 자칫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관계를 겪게 된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멀어질 때 자녀들은 부모 대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게 되고 많은 의지를 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된다. 인터넷상에서 아동들은 친구를 더욱더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채팅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안 하게 되면 자신의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초조한 생각이 들어 더욱더 인터넷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주거형태의 변화이다. 경제성장과 핵가족화로 인한 형제수의 감소로 인해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자녀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방을 갖게 되었고 자녀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그들의 방안에 있는 정보매체와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되고 인터넷의 특성에 매료되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

셋째, 부모들의 인터넷에 대한 가치관 및 통제력의 문제이다. 인터넷이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 부모들은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고 심지어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질까봐 학원에까지 보낸다. 또한 부모들은 인터넷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자녀들은 인터넷에 접근하기 쉬웠고 인터넷 사용 시간이 자유로웠으며, 이러한 부모의 방치로 인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어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조춘범, 2001).

또한 사회환경적 요인은 학교환경과 또래관계에 있다.

첫째,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업성적 우수자라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다수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심리적 압력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접하게 되고 쉽게 인터넷에 몰입하게 된다.

둘째, 집단따돌림 현상에 따른 또래관계이다.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에 몰입하게 한다. 왜냐하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현실의 세계에서 자기자신과 대화를 하거나 놀아 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터넷에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익명성의 특성이 있는 인터넷에서 소외되고 자신감이 결여된 자기자신에 대해 보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쉽게 인터넷에 중독이 된다.

셋째, 선생님들의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부재이다. 수업의 업무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인터넷 활용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일일이 교사들이 통제하고 교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거나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대한 얘기나 인터넷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자주 언급해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 습득될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환경 요인 면에서 살펴볼 때 아동들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고, 게임을 잘하고, 인터넷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 주변의 또래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며, 특히 아동기의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는 시기에 이러한 결과로 아동은 긍정적, 부정적 자기평가를 함으로써 사회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2. 인터넷 사용과 부모관련 선행연구

가정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생활의 장이고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돕는 교육의 장이다. 출생후 최초로 접하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및 역할 수행을 통하여 아동은 지적, 정의적, 신체적, 행동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이경화, 1992).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나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말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가 아동의 성장에 원동력을 이루기 때문에 아동의 성격은 주로 어렸을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박희진, 2003). 이렇듯 아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아동기 및 청소년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과다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인터넷 사용과 부모관련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진숙(2000)에 의하면 인터넷이 가족에 미치는 문제로 가족과의 대화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가족단위의 외식이나 여행에 자주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 가족 구성원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며, 통신이용시간에 대해서도 부모와 갈등을 겪는다고 하였다. 김종원(2002)은 인터넷 중독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변화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문정혜(2001)는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중독되면 동료 거부나 결석이 잦아지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가정에서도 가족과의 대화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족

단위의 외식이나 여행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등 대인관계기피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유미(2001)는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아동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높은 수입이 미치는 이용분야는 정보 및 자료검색분야 및 이메일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부모의 수입과 아동의 인터넷 이용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터넷 접속빈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교육정도가 아동의 이용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정보, 자료검색분야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집단간 차이를 볼 때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집단이 고졸인 집단에서보다 정보 및 자료검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기간에 있어서도 1년이상인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김미경(2003)은 부모님이 컴퓨터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 중독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어머니가 사용할 경우도 가장 낮았는데 아버지만 사용할 경우는 가장 중독정도가 높았고, 부모님 두분 모두 사용을 못할 경우도 부모가 사용할 줄 아는 경우에 비해 높은 중독을 보여 어머니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느냐가 자녀의 컴퓨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Young(1998)은 컴퓨터 이용에 대해 부모님의 감독과 통제가 심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가능성이 높았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중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박희진(2003)은 가족 구성이 핵가족화가 되고 부모의 맞벌이가 증가할수록 부모의 적절한 간섭이나 통제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인터넷 무분별한 접근이 많게 되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연구결과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오현화(2002)와 윤지영(2001)은 거부적이거나 비성취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는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남숙(2002)과 이제원(2001)은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치, 학대 등의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김재수(2001)는 인터넷 중독자는 대개 초보 시절 잘못된 PC통신 이용 습관과 부모들의 무관심에 의해 중독된다고 하였으며, 박정은(2001)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소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들 즉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두가지 측면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인터넷 사용 및 중독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주시에 위치한 H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총 800명이며, 본 연구의 자료는 질문지에 의해 조사되었다. 총 800부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713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어, 713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일괄적으로 각반 담당교사에 의해 학생들에게 소개되었고 담당교사가 이를 수거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경향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본 연구대상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이 52.7%이고 여학생이 47.3%이며, 학년별로 4학년이 34.8%, 5학년이 35.2%, 6학년이 30%이다. 어머니 직업유무를 살펴본 결과, 직업이 있는 사람은 57.8%이며, 직업이 없는 사람은 42.2%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 측정도구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성옥(1994)의 양육행동특성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합리적인 지도', '애정적 양육',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 '성취격려', '적극적 양육 참여'의 6개 영역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과하였으며, 각 양육행동특성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평균이 높을수록 각 양육특성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합리적인 지도'는 .81, '애정적 양육'은 .87, '권위주의적 통제'는 .80, '과보호 양육'은 .72, '성취격려'는 .71, '적극적 양육 참여'는 .7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 6개의 영역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합리적 지도(11문항) : 아동을 도와주거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왜 안되고, 왜 용납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태도이다.
- ② 애정적 양육(8문항) : 아동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 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이다.
- ③ 권위주의적 통제(9문항) :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아동을 무시하며 벌을 사용하여 강요하는 양육행동이다.
- ④ 과보호 양육(9문항) :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고 의존성을 보상해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태도이다.
- ⑤ 성취격려(5문항) : 아동의 발달수준에 대한 관심이거나 지적,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태도이다.
- ⑥ 적극적 참여양육(5문항) : 아동과 함께 적극적·활동적으로 행동하며, 아동과 놀아주고 아동이 하는 일이나 문제해결에 대해 요청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된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경향

아동변인			어머니변인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376(52.7)	모직업	유	396(57.8)
	여	337(47.3)		무	289(42.2)
학년	4학년	248(34.8)	모연령	29~34세이하	32(4.75)
	5학년	251(35.2)		35~39세이하	338(50.15)
	6학년	214(30.0)		40~44세이하	263(39.0)
		45세이상		41(6.1)	
형제순위	독자	31(4.4)	모학력	중졸	27(4.3)
	첫째	304(42.8)		고졸	185(29.6)
	둘째	315(44.4)		전문대졸	44(7.1)
	셋째이상	60(8.5)		대학졸	247(39.6)
		대학원졸		121(19.4)	

2) 인터넷 사용경향 측정도구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 측정을 위해 인터넷 사용기간,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 주로하는 인터넷 사용유형, 주로하는 인터넷 게임유형,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도 변인이 사용되었으며, 인터넷 사용기간은 개월로,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은 분단위로 조사되었고, 주로하는 인터넷 사용유형으로는 ① 게임, ② 채팅, ③ e-mail보내기, ④ 정보검색(조사탐구), ⑤ 과제해결, ⑥ 기타이며, 주로하는 인터넷 게임유형으로 게임명을 적도록 하여 게임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로는 ① 스트레스 해소 ②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③ 내가 대단한(멋진, 힘이센)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 ④ 게임을 해야 친구들과끼리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 ⑤ 재미있으니까 ⑥ 기타이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도로 '매우 권장한다' 5점, '권장하는 편이다' 4점, '권장도 억제도 않는다' 3점, '억제하는 편이다' 2점, '매우 억제한다' 1점으로 점수를 부과하였다.

3) 인터넷 중독 측정도구

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Young(1998)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제작한 5점 척도로 된 인터넷 중독검사도구(Internet Addiction Test)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이나 대인관계 성향의 변화, 학업에서의 장애여부, 통제절제력의 여부,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자주 그렇다'가 5점, '조금 그렇다'가 4점, '보통이다'가 3점, '조금 그렇지 않다'가 2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점수를 부과하여 그 평균을 산출하였다. 각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a) 계수는 .92이었다.

평균 점수가 1~2.5점 미만인 사람은 평범한 이용자가 가끔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기통제가 가능하며, 2.5점이상 4점 미만은 중독 초기로 조심해야 할 상

황이다. 그러나 4점 이상 5점 이하이면 중독 중증이므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인터넷 중독 검사에서 4점 이상을 받은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장되고 있다(김종원, 200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준에 따라 중독의 정도를 나누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로 4점 이상이 16명(2.4%)에 불과하여 중증 중독으로 볼릴 사람이 별로 없었고, 중독초기는 158명(23.5%)이며, 1~2.5점 미만인 아동은 499명(74.1%)이어서 중독수준을 연속형 변수로만 사용하였고 그 점수가 비록 낮지만 인터넷 중독수준으로 명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9.0을 사용하여 결과처리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료처리를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은 어떠한가?

<표 2>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기간이 3년 이상된 학생 30.2%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하루평균

<표 2>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기간 및 하루평균사용시간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인터넷 사용기간	0~6개월	57(8.3)	인터넷 하루평균사용시간	0~30분	180(27.4)
	6개월~1년	76(11.0)		30분~1시간이하	185(28.2)
	1~2년	185(26.9)		1시간 초과~1시간 30분	148(22.6)
	2~3년	162(23.5)		1시간 30분 초과~2시간	40(6.1)
	3년이상	208(30.2)		2시간 초과~2시간 30분	39(5.9)
					2시간 30분 초과~3시간
			3시간이상	41(6.3)	

<표 3> 초등학교 아동의 주된 인터넷 사용유형과 게임 유형 및 게임을 하는 이유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주로 하는 인터넷 사용유형	게임	346(49.9)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유형	arcade game	180(34.0)
	채팅	38(5.5)		simulation game	35(6.6)
	e-mail보내기	176(25.4)		roleplaying	23(4.3)
	정보검색(조사탐구)	14(2.0)		on-line game	202(38.0)
	과제해결	22(3.2)		game in portal site	91(17.1)
	위내용중 3가지 고루	97(14.0)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스트레스 해소				238(34.7)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190(27.7)
	내가 대단한(멋진, 힘이 센)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				20(2.9)
	게임을 해야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				70(10.2)
	재미있으니까				148(21.6)

사용시간은 하루 1시간 이하 사용하는 학생이 55.6%로 전체 학생수의 절반 이상이 1시간 이하로 응답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이 주로하는 인터넷 사용유형은 '게임'으로 전체 49.9%가 응답하였으며,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의 유형으로 'on-line game'이 38.0%, 'arcade game'이 34.0%로 응답하였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로 초등학교 아동의 34.7%가 '스트레스의 해소'라고 응답하였으며, 27.7%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21.6%가 단지 '재미있으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위자료에 게시되지 않은 내용인 즐겨하는 게임으로는 크레이지 아케이드(craze arcade)가 14.6%(77명), 야후 및 다음게임 13.0%(69명), 카르마 10.7%(56명), 거상 9.9%(52명)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 정도로 34.5%가 '권장하는 편이다'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권장도 억제도 않는다'가 32%로 응답하였다.

<표 4>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도

변인	구분	빈도(%)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도	매우 권장한다	107(15.9)
	권장하는 편이다	232(34.5)
	권장도 억제도 않는다	215(32.0)
	억제하는 편이다	98(14.6)
	매우 억제한다	20(3.0)

2.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과의 관계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주된 인터넷 사용 유형,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은 차이가 있는가?

<표 5>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권위주의적 통제, 적극적 참여양육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주된 인터넷 사용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수준은 게임이나 채팅을 주로 하는 아동보다 과제해결을 주로하는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권위주의적 통제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증(Duncan test)결과 각 아동집단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적극적 참여양육수준은 게임을 주로하는 아동보다 정보검색이나 과제해결을 주로하는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수준은 '친구와의 대화(게임을 해야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나 '흥미(재미있으니까)'라고 응답한 아동보다 '나의 기분(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이라고 응답한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과보호 양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증(Duncan test)결과 각 아동집단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에 따른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 경향의 차이

	주된 인터넷 사용유형	Mean(SD)/D	F-값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Mean(SD)/D	F-값
합리적 지도	게임 채팅 e-mail 보내기 정보검색 과제해결 위세가지이상	4.20(.57) 4.22(.54) 4.25(.57) 4.44(.51) 4.46(.41) 4.32(.51)	1.877	스트레스 자유 나의 기분 친구와의 대화 흥미	4.26(.53) 4.20(.56) 4.24(.70) 4.19(.55) 4.27(.57)	.606
애정적 양육	게임 채팅 e-mail 보내기 정보검색 과제해결 위세가지이상	3.89(.79)a 3.95(.79)a 4.06(.71)ab 3.97(.97)ab 4.34(.58)b 4.06(.72)ab	2.665*	스트레스 자유 나의 기분 친구와의 대화 흥미	3.96(.71) 3.95(.76) 4.12(.64) 3.94(.82) 4.04(.84)	.583
권위주의적 통제	게임 채팅 e-mail 보내기 정보검색 과제해결 위세가지이상	2.76(.81) 2.65(.89) 2.51(.75) 2.75(.90) 2.52(.75) 2.67(.83)	2.469*	스트레스 자유 나의 기분 친구와의 대화 흥미	2.74(.82)ab 2.73(.83)ab 2.96(.66)b 2.63(.71)a 2.48(.80)a	3.417**
과보호 양육	게임 채팅 e-mail 보내기 정보검색 과제해결 위세가지이상	2.79(.84) 2.79(.83) 2.63(.70) 2.64(.99) 2.51(.54) 2.62(.80)	1.734	스트레스 자유 나의 기분 친구와의 대화 흥미	2.79(.79) 2.77(.76) 2.79(.60) 2.82(1.00) 2.52(.76)	3.306*
성취격려	게임 채팅 e-mail 보내기 정보검색 과제해결 위세가지이상	4.43(.59) 4.39(.62) 4.46(.58) 4.46(.57) 4.75(.32) 4.43(.61)	1.335	스트레스 자유 나의 기분 친구와의 대화 흥미	4.50(.52) 4.39(.63) 4.61(.36) 4.46(.62) 4.39(.64)	1.845
적극적 참여양육	게임 채팅 e-mail 보내기 정보검색 과제해결 위세가지이상	3.35(.89)a 3.26(.84)ab 3.43(.84)ab 3.81(.74)bc 3.86(.65)c 3.40(.75)a	2.467*	스트레스 자유 나의 기분 친구와의 대화 흥미	3.37(.86) 3.37(.83) 3.66(.82) 3.39(.91) 3.45(.88)	.701

D: Duncan *p<.05 **p<.01

※ 스트레스 : 스트레스의 해소, 자유 :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때문, 나의 기분 : 내가 대단한(멋진, 힙센)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 친구와의 대화: 게임을 해야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 흥미 : 재미있으니까

[연구문제 2-2]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인터넷 사용 기간, 인터넷 하루평균사용시간, 부모의 인터넷 권장도)은 관계가 있는가?

<표 6>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은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적극적 참여양육은 인터넷 하루평균사용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합리적 지도 및 적극적 참여양육일수록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

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은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일수록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과보호 양육일수록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과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과의 관계

인터넷사용(평균) 양육행동특성(평균)	인터넷 사용기간 (30.34개월)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82.76분)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도(3.46)
합리적 지도(4.24)	.021	-.083*	.001
애정적 양육(3.97)	.032	-.032	.061
권위주의적 통제(2.69)	-.021	.086*	-.043
과보호 양육(2.73)	.008	.118**	.078*
성취격려(4.44)	.034	-.054	.073
적극적 참여양육(3.40)	.028	-.115**	.007

* p<.05 ** p<.01

3.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중독은 관계가 있는가?

<표 7>에 의하면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 적극적 참여양육은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 적극적 참여양육일수록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은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일수록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취격려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연구문제 4]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과 인터넷 중독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1]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주된 인터넷 사용 유형,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에 따라 인터넷 중독은 차이가 있는가?

<표 8>에 의하면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유형에

<표 7>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양육행동특성(평균)	인터넷 중독 (평균: 2.06)	양육행동특성(평균)	인터넷 중독 (평균: 2.06)
합리적 지도(4.24)	-.129**	과보호 양육(2.73)	.281***
애정적 양육(3.97)	-.099*	성취격려(4.44)	-.056
권위주의적 통제(2.69)	.288***	적극적 참여양육(3.40)	-.096*

* p<.05 ** p<.01 ***p<.001

<표 8>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 경향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변인	구분	N	인터넷 중독	F-값
			M(S.D)/D	
주된 인터넷 사용유형	게임	328	2.16(.84) cd	11.337***
	채팅	37	2.48(.92) d	
	e-mail 보내기	173	1.83(.60) bc	
	정보검색	13	1.38(.25) a	
	과제해결	22	1.49(.53) ab	
	위의 세가지 이상	92	2.14(.74) cd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스트레스의 해소	234	2.13(.82) ab	5.566***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때문	182	2.09(.75) ab	
	내가 대단한(멋진, 힘센)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	19	2.05(.78) ab	
	게임을 해야 친구들과끼리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	67	2.34(.85) b	
	재미있으니까	138	1.83(.70) a	

D=Duncan ***p<.001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정보 검색을 주로하는 아동보다 게임, 채팅, e-mail보내기를 주로하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e-mail보내기를 하는 아동보다 채팅하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게임이 '재미있으니까'로 응답한 아동보다 '게임을 해야 친구들과리 이야기 통하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문제 4-2]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인터넷 사용기간, 인터넷 하루평균사용시간, 부모의 인터넷 권장도)과 인터넷 중독은 관계가 있는가?

<표 9>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구분	N	Mean	인터넷 중독(n=673) (Mean=2.06)
			Correlation
인터넷 사용 기간	644	30.34개월	.067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	656	82.76분	.440***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도	672	3.46	.035

***p<.001

<표 9>에 의하면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은 82.76분이며, 인터넷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경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기간이 3년 이상된 학생 30.2%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은 하루 1시간 이하 사용하는 하는 학생이 55.6%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 아동이 주로하는 인터넷 사용유형은 '게임'으로 전체 49.9%이며, 주로하는 인터넷 게임의 유형으로 'on-line game'이 38.0%이고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동의 34.7%가 '스트레스의 해소'라고 응답하였으며, 27.7%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21.6%가 단지 '재미있으니까'로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를 밝혔다. 아동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로 '스트레스의 해소'라고 하였는데 아동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접하게 되고 쉽게 인터넷에 몰입하게 된다고 한 김종원(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의 응답으로 볼 때 이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현실의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현실에서 획득하기 위한 욕구가 게임을 통해 실현되며, 공부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지위가 마음대로 게임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에 아동이 게임을 하는 이유라고 사료된다.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 정도로 34.5%가 '권장하는 편이다'로, 32%가 '권장도 억제도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교육을 위해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는 면에서 볼 때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부모의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지도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권위주의적 통제, 적극적 참여양육에서 초등학생 아동의 주된 인터넷 사용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수준은 게임이나 채팅을 주로하는 아동보다 과제해결을 주로하는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권위주의적 통제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증결과 각 아동집단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적극적 참여양육수준은 게임을 주로하는 아동보다 정보검색이나 과제해결을 주로하는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에서 초등학생 아동의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수준은 '친구와의 대화(게임을 해야 친구들과리 이야기 통하기 때문)'나 '흥미(재미있으니까)'라고 응답한 아동보다 '나의 기분(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이라고 응답한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과보호 양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증결과 각 아동집단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멀어질 때 자녀들은 부

모대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게 되고 채팅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안주하게 된다고 한 김종원(2002)의 연구를 지지해 주며, 인터넷 중독자는 대개 초보시절 잘못된 PC통신 이용습관과 부모들의 무관심에 의해 중독된다고 한 김재수(2001)의 연구에서 볼 때 잘못된 PC습관유형으로 오랜 시간 사용도 속하지만 무분별한 채팅이나 게임등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이 아동의 인터넷 채팅과 게임에 빠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은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적극적 참여양육은 인터넷 하루평균사용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합리적 지도 및 적극적 참여양육일수록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은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일수록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과보호 양육일수록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권장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재수(2001)는 부모의 적절한 간섭이나 통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볼 때 시간상 공간상 하루중 인터넷의 무분별한 접근이 많게되어 아동은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셋째,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 적극적 참여양육은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 적극적 참여양육일수록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은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일수록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치, 학대 등의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한 김남숙(2002)

연구와 이계원(2001)의 연구를 지지해주며, 인터넷 중독 청소년중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한 Young(1998)의 견해와 부모의 무관심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킨다는 김재수(2001)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넷째,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경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유형 및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유형중 채팅을 하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게임을 하는 아동의 중독수준이 높았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인터넷상에서 채팅이나 게임에 빠져들고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인터넷에 빠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로는 '게임을 해야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았다. 이는 아동기에 중요한 또래관계의 원인으로 많은 아이들의 공통된 이슈가 인터넷 게임이고 여기에서 따돌림을 겪지 않으려면 게임을 잘 알고 있어서 서로 대화가 막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하루평균 사용시간은 인터넷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터넷 사용기간과 부모의 권장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의 인터넷 중독이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다고 한 박희진(2003)의 연구와 일치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결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부적 상관이 있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아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보살핌이 더욱더 요구되며, 이런 결과로 부모들은 평소에 대화를 통해 가까우면서도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인터넷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하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이 자녀의 인터넷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나친 인터넷 몰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 부모-자녀와의 관계 즉 의사소통의 개선이다. 가정에서 무조건 컴퓨터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아동들과 컴퓨터 문화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여 서로간에 민주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Coleman(1988)의 지적대로 밀접하고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 아동의 올바른 컴퓨터 사용에 대한 실천이 요구된다. 아동과 함께 합리적인 규칙과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고 컴퓨터의 다양한 이용도 즉 게임과 채팅뿐 아니라 가족 홈페이지 만들기, 정보사냥대회, 학교 또는 학생 홈페이지 만들기,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등 아동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컴퓨터에 대한 정보활용과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 이외의 다른 취미활동을 권장한다. 아동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인터넷이 아닌 다른 취미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도우며, 아동의 발달과 흥미에 맞는 적절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주요어 :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양육, 성취경려, 적극적 참여양육, 인터넷 중독

참 고 문 헌

- 교육통계연보(2000). 한국교육개발원.
- 권정혜(2000). 감각추구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 권준모(1996). 정보산업사회와 아동: 아동의 멀티미디어 사용실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55-75.
- 김남숙(2002). 중학생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3).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 충동성, 대인불안과 컴퓨터 게임중독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우(2002).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옥(199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2001). 아동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수(200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PC통신중독실태와 행동특성.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원(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중독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2000)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 실태. 청소년의 PC중독.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효선(2002). 인터넷 게임중독이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미희(2003).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충동성,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정혜(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진(2003).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및 부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화(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민(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 윤재희(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경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영(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1992). 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딸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농어촌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국(1999). PC통신유행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봉건(1999).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독: 통신 인터넷 중독 증의 증상과 예방. 사이버 공간의 심리: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위하여. 서울 : 박영사.
- 이세용(2000). 청소년 인터넷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정선태(2001). 자기통제훈련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해소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전산원 (2000). 인터넷 기반 현황.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 Brenner, V. (1996). An initial report on the online assessment of internet addiction: The first 3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Marquett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and SUNY at Buffalo.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World wide web.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supportgp.html>
- iweekly(2000). No. 4, pp. 16-20.
- Young, K. S.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Washington, D.C.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4. 10. 29 접수; 2004. 12. 10 채택)